

# 우두종 반야·노장·중현학 결합해 새 선학 사상 제시

## <20> 선사(禪師)문화의 거시들(1)-이화

당대(唐代)에 들어가면서 선종(禪宗)은 중국의 중요한 종파로 성립된다. 물론 남북조(南北朝)시기에 북방을 중심으로 달마(達摩)-혜가(慧可)계의 이른바 '남천축일승종(南天竺-一乘宗)'이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종파를 형성할 정도는 아니었다.

종파의 성립 조건을 독자적 사상과 그를 제시한 종조(宗祖),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한 문도(門徒)의 세 가지로 본다면, 선종은 바로 이른바 4조(祖)로 칭해지는 도신(道信) 선사와 5조 홍인(弘忍) 선사의 동산법문(東山法門)에 이르러 형성됐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종의 조조(初祖)의 지위는 당연히 도신 선사가 돼야 할 것이다.

도신 선사의 선사상은 달마-혜가계와 상당한 차별을 지닌 독자성을 구비하고 있고, 또한 도신-홍인의 문화에는 각각 700여 명, 1200여 명의 대중이 모였으며, 나아가 북조(北朝)와 남조(南朝), 남중으로부터 분화된 오가칠종(五家七宗), 염불선(念佛禪) 등 선종의 모든 분파가 도신-홍인의 동산법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종의 기치인 '교외별전(敎外別傳)'과 '이심전심(以心傳心)'은 필연적

장에 있어서는 사대부 거시들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하겠다. 이에 선종에 있어 뛰어난 거시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선종의 거시들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주목할 거시는 바로 이화(李華; 715-766) 거시이다. 거시는 자(字)가 하숙(遐叔)으로 조주(趙州) 천황(贊皇, 현 河北省 元氏)사람이다. 어려서 진사(進士)에 급제해 감찰어사(監察御史), 우보궐(右補闕) 등 관직을 맡아 많은 사람들의 시샘을 받았다고 한다. <신당서(新唐書)>에 실린 그의 전기에 따르면, 거시는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모친을 구하려고 반란군이 점령한 장안(長安)에 갔다가 반란군에게 잡혔다. 난이 평정된 이후, 그 과오를 물어 항주사호참군(杭州司戶參軍)으로 관직이 강등됐다. 후에 다시 이부(吏部) 원외랑(員外郎)으로 중용됐으나 거시는 "위급한 난을 당해 절개도 지키지 못하고, 또한 모친을 편안하게 모시지도 못했다"며 관직을 사양하고, 강남(江南)의 산양(山陽)에 은거했다. 자식들에게도 관직에 나가지 말고 농사를 지으라고 권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으로 거시는 만년에 더욱 불교에 심



그림 · 김홍인

서 말하는 "악정자춘이 부자에게 들은 것 같다"는 것은 바로 <예기(禮記)>의 <제의(祭義)>편에 나오는 고사에서 비롯됐다. 즉 악정자춘이 밭을 다쳐 몇 달 동안 근심했는데, 제자들이 물으니, 효(孝)는 몸을 상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는데 몸을 다쳤으니, 나는 그를 근심하는 것으로, 이를 증자에게 들었고, 증자는 다시 부자에게 들었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효'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다.

거시가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스승을 향한 지극한 '효'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해 스승에게도 지극한 효를 다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지극한 효의 완성은 무엇인가? <효경(孝經)>에서는 효의 완성을 '입신양명(立身揚名)'으로 설정했다. 우두선에 귀의한 거시의 '양명'은 무엇이었을까? 선식(禪式)의 양명은 거시가 귀의한 우두선에 정통성을 부여해 선법이 보다 널리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는 물론 필자의 추론일 뿐이다. 그러나 거시의 의도는 성공적이어서 역대로 우두선은 정통선맥으로 평가됐다. 또한 거의 반세기가 지난 후(829), 선종에 심취한 류우석(劉禹錫) 거시에 의해 <우두산제일조용대사신탑기(牛頭山第一祖融大師新塔記)>가 찬술된다. 여기에서도 범용 선사는 도신 선사의 법맥으로 묘사된다. 아마도 류우석 거시는 이화가 찬술한 <비명>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화 거시의 <비명>에는 현소 선사가 입적하자 '주(州)의 자사(刺史)와 읍(邑)의 관리가 상례(喪禮)를 주관했고, 대중들이 인솔하여 애도하니, 강호(江湖)에 슬픔이 가득했다'는 표현이 나타난다. 또한 '보살계(菩薩戒) 제자'로서 '이부시랑(吏部侍郎) 제한(濟韓), 형부상서(刑部尚書) 장군(張均), .....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郎) 최영술(崔永欽)' 등 십여 명의 중앙 고위관료들의 명칭이 보인다. 이것을 보면 현소 선사 주변에 상당히 많은 거시들이 활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가운데 여러 명이 신·구의 <당서(唐書)>에 그 전기가 게재돼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화 거시는 대력(大曆) 원년(元年)에 52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거시는 시문(詩文)에 능해 주옥과 같은 많은 글들을 남겼다. 후인들이 그를 모아 <이화숙문집(李華叔文集)> 10권으로 편찬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두종은 삼론종(三論宗)의 반야사상과 노장(老莊)사상, 특히 선현학(玄玄學)의 <장자(莊子)>를 세롭게 해석한 '중현학(重玄學)'을 결합시켜 새로운 선학(禪學)사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두선이 선종의 정맥으로 들어오면서 후기 선종, 즉 조사선(祖師禪)에 있어서는 점차로 <장자>의 영향을 깊이 받게 돼 이른바 '장학화(莊學化)'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흐름은 바로 이화 거시가 우두선의 법맥을 조작한 결과라고 한다면 너무 비약한 것일까?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담연 대사에게 천태학, 선무외 삼장에게 밀교 배워

### 현소 선사 스승으로 우두선(牛頭禪) 널리 전해

으로 석가모니 불조(佛祖)에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논리적 결과를 연출하게 된다. 더욱이 초당(初唐)시기에 유가에서는 '전법세계(傳法世系)', 도가에서는 '도통설(道統說)'을 확립시켰다. 선종보다 앞선 기존 종파에서도 역시 부법(付法)의 법맥을 확립했다.

이에 선종에서도 범용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심전심'은 그 법통을 석가모니 불조로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서천(西天) 33조(祖)'와 '동토육조(東土六祖)'의 '조통부법설(祖統付法說)'을 세웠고, 결국 중국선종의 조조는 서역으로부터 온 달마(達摩) 대사가 차지했다.

중국의 제종과 가운데 뒤늦게 형성된 선종은 여러 시절인연으로 점차 중국의 대표적인 종파로 정립돼 명·청시기에 이르러 정토(淨土)와 결합해 천하를 석권하게 됐다. 이러한 과정에는 선사상 자체가 중국인을 성향에 맞게 재구성됐던 까닭과 기라성 같은 선사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 외에 거시들의 다양한 활동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선종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법통 문제와 교세 확

취하게 됐다.

거시는 일찍이 천태종의 형제담연(荊溪湛然) 대사로부터 천태학을 배웠다. 담연 대사는 거시를 위해 <지관대의(止觀大意)>를 찬술하기도 했다. 또한 <대일경(大日經)> 등 밀교경전을 번역한 선무외(善無畏) 삼장으로부터 밀교를 배웠다. 개원(開元) 23년(735) 선무외 삼장이 입적하자 거시는 삼장의 <행장(行狀)> 및 <비명(碑銘)> 등을 찬술했다. 그러나 만년에 거시는 우두선(牛頭禪)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거시는 우두법운(牛頭法融) 선사 5세손 경산현소(靈山玄素) 선사를 스승으로 모시며, 우두선이 널리 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소 선사 입적 후, 거시는 <경산대사비명(靈山大師碑銘)>을 찬술했다. 이 비명에서 거시는 우두선의 법맥을 '도신(道信)-범용(法融)-지암(智嚴)-혜방(慧方)-법지(法持)-현소(玄素)'로 설정했다. 역대로 선종에서는 거시가 설정한 법맥에 따라 범용 선사를 도신 선사의 사법(嗣法)으로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우두선을 정통 선맥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이런

법맥은 최근 연구에 의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더구나 우두법운 선사와 동시대에 활동한 도선(道宣) 스님은 최초로 범용 선사의 전기를 <속고승전(續高僧傳)>에 기재하면서 도신 선사와의 사법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도신 선사와의 사법관계가 사실이라면 법맥을 극도로 중시하는 선종 승려의 전기를 집필하면서 그를 누락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법맥을 설정했을까?

이는 거시가 활동할 당시 동산법문의 위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수(神秀) 대사의 북종(北宗)이 측천무후(則天武后)의 귀의를 받음으로써 제도(帝制)불교에 진입해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또

한 타락신회(禪神會) 선사가 육조혜능(六祖慧能) 선사를 선양하기 위해 맹렬하게 북종을 방계이고, 혜능의 남종만이 정맥이라는 '남종현장(南宗顯彰) 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북종과 남종을 모두 배출한 동산법문은 선종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담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시가 귀의한 우두선의 법맥을 동산법문 창시자인 도신 선사에게 연결시킨다면 그 효과는 너무도 분방하기 때문이었다.

<경산대사비명>의 끝부분에 현소 선사에 대한 거사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 있다. "제자는 경산 선사로부터 법을 들음은 마치 악정자춘(樂正子春)이 부자(夫子; 공자에게 들은 것 같다)." 이 구절에

현대불교신문 독자들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훈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사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전주	조성준	1975년생	170	전	대	졸	회사원	서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충주	이광표	1968년생	168	대	졸	자영업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대전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노해운	1972년생	173	고	고	C E O	충주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	왕현민	1973년생	179	대	고	대졸	회사원	충주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서울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고	회사원	충주	박영규	1966년생	182	고	졸	자영업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전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구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고	회사원	대구	문윤중	1970년생	163	고	졸	자영업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무원	충주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서울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고	회사원	대구	김길성	1975년생	175	전	대	졸	민간회	민건홍	1973년생	170	전	대	졸	건설사	경기도																					
이태민	1981년생	180	대	대	공무원	인천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사원	한상규	1973년생	171	대	고	대졸	경기도	김정호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																
김기업	1969년생	180	전	대	대졸	서울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대	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고	졸	회사원	경기	오상태	1965년생	165	고	고	졸	경기시흥	정연중	1959년생	165	고	고	졸	회사원	경기							
홍봉표	1967년생	180	전	대	대졸	경기고양	오세주	1975년생	175	고	고	졸	경기시흥	오세주	1975년생	175	고	고	졸	회사원	경기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고	졸	경기부천	박현준	1964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고	졸	경기부천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고	졸	경기시흥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대	졸	경기부천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고	졸	경기부천	배중우	1971년생	170	전	대	졸	경기부천	이형준	1973년생	176	전	대	졸	경기부천								
오상태	1965년생	165	고	고	졸	경기부천	연길호	1973년생	175	대	대	졸	경기부천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대	졸	경기부천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경기부천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대	졸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고	졸	경기부천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고	졸	경기부천	오진호	1976년생	163	고	졸	경기부천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대	졸	경기부천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고	졸	경기부천	박종우	1971년생	170	대	대	졸	경기부천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대	졸	경기부천	정화섭	1960년생	175	대	대	졸	경기부천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고	졸	경기부천	최용우	1962년생	166	고	고	졸	경기부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대	졸	경기부천	조현욱	1962년생	166	고	고	졸	경기부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고	졸	경기부천								
이형준	1973년생	176	전	대	졸	경기부천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고	졸	경기부천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고	졸	경기부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중	졸	경기부천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대	졸	경기부천	서중은	1971년생	170	고	고	졸	경기부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중	졸	경기부천	정화섭	1960년생	175	대	대	졸	경기부천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대	졸	경기부천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대	졸	경기부천	이현철	1972년생	175	방	방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정화섭	1960년생	175	대	대	졸	경기부천	박찬수	1975년생	160	전	대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고	졸	경기부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대	졸	경기부천	모용우	1973년생	177	대	대	졸	경기부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중	졸	경기부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중	졸	경기부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고	졸	경기부천	박대식	1974년생	175	대	대	졸	경기부천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고	졸	경기부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중	졸	경기부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중	졸	경기부천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고	졸	경기부천	이현철	1972년생	175	방	방	졸	경기부천	박중구	1972년생	175	고	고	졸	경기부천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고	졸	경기부천	김진희	1964년생	160	고	고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최용우	1962년생	166	고	고	졸	경기부천															
이현철	1972년생	175	방	방	졸	경기부천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고	졸	경기부천	최용우	1962년생	166	고	고	졸	경기부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대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고	졸	경기부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대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대	졸	경기부천	박선순	1974년생	175	대	대	졸	경기부천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대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박중구	1972년생	175	고	고	졸	경기부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대	졸	경기부천	박중구	1972년생	175	고	고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최용우	1970년생	170	방	방	졸	경기부천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고	졸	경기부천	최용우	1970년생	170	방	방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이동희	1970년생	172	대	대	졸	경기부천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대	졸	경기부천	이동희	1970년생	172	대	대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고	졸	경기부천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대	졸	경기부천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고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육근성	1970년생	185	중	중	졸	경기부천	강중남	1973년생	162	고	고	졸	경기부천	육근성	1970년생	185	중	중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중	졸	경기부천	김태성	1971년생	170	고	고	졸	경기부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중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배영순	1956년생	150	대	대	졸	경기부천	김태성	1971년생	170	고	고	졸	경기부천	배영순	1956년생	150	대	대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배영순	1956년생	150	대	대	졸	경기부천	김태성	1971년생	170	고	고	졸	경기부천	배영순	1956년생	150	대	대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고	졸	경기부천	김태성	1971년생	170	고	고	졸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고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대	졸	경기부천	김태성	1971년생	170	고	고	졸	경기부천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대	졸	경기부천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고	졸	경기부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대	졸	경기부천	김태성	1971년생	170	고	고	졸	경기부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대	졸	경기부천	김종희																					